



보도 일시	2022. 3. 31.(목) 10:30	배포 일시	2022. 3. 31.(목) 09:30
담당 부서 <총괄>	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	책임자	과장 나상곤 (044-215-4510)
		담당자	사무관 배준혜 (jhae10@korea.kr)

「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」

□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'22.3.31.(목) 07:3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」를 주재하였음

○ 금번 회의에서는

- ①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·보고
- 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
- ③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- ④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
안건이 논의되었음

※ (붙임) 1. 부총리 모두 발언
2.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※ (별첨)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

□ 지금부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(경제중대본)회의를 시작

<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응 >

□ 최근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용 증가세*와 수출 견조세**등은 이어지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,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,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차원의 복합적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물가 불안, 기업심리*** 위축, 산업활동 제약 등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누적중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1.8)51.8 (9)67.1 (10)65.2 (11)55.3 (12)77.3 ('22.1)113.5 (2)103.7

** 수출(전년동기비, %): ('21.2/4)42.0 (3/4)26.5 (4/4)24.5 ('22.1)15.5 (2)20.6 (3.1~20)10.1

↳ 일평균(전년동기비, %) 38.0 29.3 21.9 17.8 17.6 26.4

*** BSI : ('21.10) 90 (11) 90 (12) 95 ('22.1) 90 (2) 91 (3) 84

○ 특히 그중에서도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압력이 고조되고, 글로벌 통화긴축 등 여러 여건으로 우리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7년 6개월만에 3%를 돌파(3.28일, 3.031%) 하는 등 시장변동성도 확대되어 각별한 경계 대응중

* 주요국 2월 물가상승률% : ①(美) 7.9 [’82년 이후 최고] ②(유로존) 5.9 [통계작성<’97년> 이후 최고]

③(英) 6.2 [’92년 이후 30년만에 최고] ④(OECD) 1월 7.2 [’91년 이후 31년만에 최고]

** 국채 3년/10년물 금리(3.28일 전년말비, bp): (韓)+95/+78 (美)+163/+95 (獨)+75/+76 (英)+61/+65

☞ 정부 교체기에 경기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‘생활물가·금융시장·부동산’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

- ①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중인 바,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 추가대책을 포함하여 다음주 ‘물가관계장관회의’시(4.5일) 확정·발표 예정
- ② 국채시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시기별·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, 금리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은과의 공조강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 검토
- ③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인 바, 새정부가 시장 안정속에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하향안정화에 주력

< 산업위기지역 대응, 지역일자리 창출 등 관련 지원계획 >

□ 이러한 리스크 관리노력과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산업위기지역 지원,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논의함

- ① 먼저 정부는 지역 핵심기업 위기 대응을 위해 '18.4월 이후 조선밀집지역 6곳*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·지원중이며 이중 군산지역의 지정기간이 오는 4.4일부로 만료 예정

* ①울산 동구, ②거제, ③창원 진해구, ④통영·고성, ⑤목포·영암·해남('18.5~'23.5), ⑥군산('18.4~'22.4)

→ 군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·자동차 분야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,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주요 전기차업체의 본격가동 시점이 '23년 이후인 점 등을 감안, 금일 회의시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 예상

☞ 금일 논의후 법정심의기구인 산업위기대응심의회(산업부) 심의를 거쳐 금일 오전 발표해 드리겠음. 이와 함께 선제대응 강화를 위해 제정된 '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'(2.18 시행)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

* 예방조치-선제대응지역-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구분한 체계적 대응(입법화)

- ② 두 번째 지역 상생일자리 관련임.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협약('19.1월)을 계기로 지역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·사·민·정이 협력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체결*되었고, 이중 6개 지역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·지원** 중

* 상생협약 체결(상생형 지역일자리) : ('19) 광주, 밀양, 대구 달서, 구미, 횡성, 군산 ('20) 부산 ('21) 신안, 대구 달성 ('22) 논산, 익산, 전주

**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, 취득·재산세 감면,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(5→1%) 등

→ 지금까지 6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채용(평균 72%)을 중심으로 약 1,300여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1조원이 넘는 직접투자도 발생. 또한 상생형 일자리 투자·생산 과정에서 설비도입, 물류 등 2만여명 고용+약 2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

☞ 향후에도 既 협약체결지역에 대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의 적기 선정, 신규 협약지역 추가발굴 노력(전문 컨설팅 실시 등) 그리고 대중견기업 참여유인 등 상생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

③ 한편 지난 해부터 본격 추진된 **한국판뉴딜 추진 및 성과**에 대해서도 점검 논의함.

○ 잘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은 **디지털뉴딜+그린뉴딜+휴먼뉴딜 그리고 지역균형뉴딜 등 3+1축**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, 그린경제·탄소중립으로의 이행, 우리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**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투자정책**임

→ 향후 **디지털·그린경제로의 전환속도에 주춤거림이 없고** 아울러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대비 **안전망 보강 및 지역균형발전 노력도 지속**되기를 기대

☞ **美·EU** 등도 **디지털·그린 산업 육성** 등 유사한 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고, **IMF** 등도 **한국판뉴딜을 긍정적으로 평가**하는 만큼 앞으로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이러한 **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**되기를 기대

(모두발언 여기까지임)

붙임 2

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	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	책임자	기획총괄 팀 장 정 한 (044-960-6160)
		담당자	서기관 신대원 (recallme@korea.kr)